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로 알려주세요.

종교

교황, 프랑스교계 아동성학대 사과

프랑스 가톨릭교회에서 성직자들이 지난 70년 동안 아동을 상대로 성 학대를 자행했다는 보고서가 공개되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교황은 6일 바티칸시국 바오로 6세홀에서 진행한 수요 일반알현에서 전 세계 가톨릭교회 책임자로서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교황은 “나의 수치, 우리의 수치다. 지금은 부끄러움의 시간”이라며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겪는 트라우마에 대한 나의 슬픔과 고통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문제의 중심에 두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교계에는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교황은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 성직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교회가 모두에게 안전한 집이 되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톨릭교회 내 성 학대 문제를 조사해온 독립조사위원회는 5일 2,5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프랑스 가톨릭 성직자들이 자행한 성학대 문제를 고발했다. 이들은 1950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 약 21만6,000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의 3분의 2가 성직자였으며, 피해자 대다수는 사춘기 이전의 소년이었다. 평신도에 의한 가해를 포함하면 학대 피해 아동은 33만명으로 늘어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교회는 성직자들의 성 학대에 무관심과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가해자가 행 사 기소를 피하는 경우가 상당했으며, 교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는 소수에 그쳤다. 독립조사위 조사를 이끈 장 마르크 소베 조사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가톨릭교회는 잔인하게도 2000년대 초반까지 (이 문제에) 무관심했다”며 “침묵의 베일로 은폐된 대규모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 즉위했을 때 직면한 가장 큰 난제 중 하나가 성직자들의 성 학대 문제였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교황은 ‘불처벌 폐지’를 선언하고 바티칸법을 개정해 학대 신고를 의무화했지만, 피해자들은 이 같은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교황이 지난 2019년 5월 교계의 성 학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독립조사위는 조사에 나섰다.



아버지의 눈물(요한 11,1-45 (가))

내가 눈물의 의미를 깊게 배운 것은 아버님의 눈물을 통해서다. 나에게 중요했던 사건들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적어도 네 번의 큰 눈물을 흘리셨다. 물론 아버지의 나를 위한 눈물은 더 많았을 것이지만 말이다.

첫 번째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말기에 왼손을 크게 다쳤을 때였다. 어머니의 설명에 의하면, 다친 나의 손을 본 아버지는 며칠 간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 아버지도 아주 어릴 때, 당신의 오른손을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특별히 나에게 더욱 연민의 정을 느꼈을 것이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대하여 깊게 동감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를 마친 내가 서울의 청화동에 있는 성신중학교 (소신학교) 입학시험에 낙방했을 때였다. 시험을 치르기 전날 예비소집 때에 방학 동안이 아니면 부모님도 못 보고, 새벽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해야한다는 교장 신부님의 설명을 듣고, 차라리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나로서는, 입학시험의 낙방이 아주 슬픈 일이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나의 이러한 묘한 마음을 잘 모르시는 아버지는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 석자가 안 보이자 끝내 평평 우셨다. 그러니 철부지였던 내가 아버지의 슬픔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근처의 식당에서 우족탕을 드시면서도 나의 낙방을 아쉬워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아직도 나의 뇌리에 새겨져 있다.

세 번째는, 오랫동안 여러모로 변



민하고 망설이던 내가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예수회에 입회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 날이었다. 아버지께 큰절을 올리자, “한번 집을 떠나서 출가했으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말아라!” 하셨다. 그 순간 아버지의 두 눈은 눈물로 가득하였다. 나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서 얼른 집을 나섰다.

마지막은, 아버지의 임종 때였다. 하루 종일 우리 가족들을 쳐다보시던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과장된 표현으로)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흘렸다. 결국 아버지는 눈을 감지도 못한 채 숨을 거두셨다. 그리고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서 형님이 그분의 눈을 편하게 해드렸다

요즈음 나는 위에서 말한 아버지의 눈물들이 모두 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오래된 대중가요에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노래하고 있음도 동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눈물은 인간의 마음(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오늘의 복음을 보면 하느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신 예수께서도 눈물을 흘리신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준다. 우선 그분이 죄 이외에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과,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처럼 연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 사랑과 감정의 소유자임을 입증해준다.

나의 아버지는 내가 다쳐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내가 시험에 낙방했을 때에, 내가 집을 떠나 어려운 수도 생활로 들어갈 때에, 그리고 지상의 삶에서 서로 헤어질 때에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도 당신의 친구 라자로가 죽었을 때에 역시 우셨다. 그리고 얼마 후면 당신 스스로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예감하시고 슬프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물은 그분께서 우리 인간들의 고뇌와 아픔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지를 웅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인간적 감정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눈물은, 당신을 믿는 이들 모두에게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요한 11.25) 하느님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땀은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한 당신의 한없는 사랑의 처절한 표현인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우리의 죄와 고통과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사랑하을 주님! 비천하고 미약한 저희 죄인들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변희선 신부-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 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숨은그림찾기 정답

